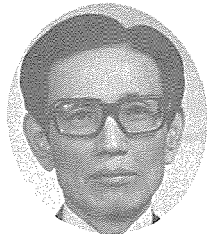


# 콜롬부스설과 진화설



한 규 호

### Ⅲ. 성병의 역사

주로 성행위에 의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염하고 접촉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왔다고 한다.

임질은 “아담과 이브”의 태고시대(太古時代)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구약성서(舊約聖書)에도 임질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대중국의 수, 당, (隋唐)시대의 의서(醫書)에도 임(淋)에 관한 증상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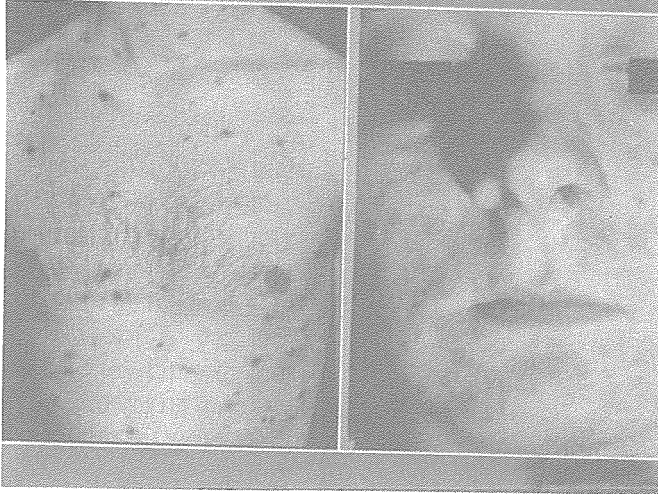
매독의 역사에 대해서는 두가지의 주

장이 있는데 하나는 “콜롬부스”설(說)이요 다른 하나는 진화설(進化說)이다. 즉 신대륙(아메리카)을 발견한 “콜롬부스”일행이 그 당시 원주민들 사이의 풍토병(風土病)이었던 이 병을 1493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에 옮겨와 수년 사이에 유럽 전체에 전파 시켰다는 “콜롬부스”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와 같이 짧은 동안에 매독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된 도화선은 그 당시 프랑스의 “샤루루8세”의 군대가 이탈리아에 침입한 “나포리”전쟁(1494~95년)이었다. 즉 많은 스페인 병사가 나포리를 방어 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나포리 여성들에게 이 병을 전염 시켰으며, 스페인군대의 철수와 동시에 나포리에 입성(入城)한 프랑스군은 이들 나포리여성들로부터 전염되어 프랑스군대내에 유행을 보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군대내에는 독일과 영국으로 부터의 지원병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매독은 순식간에 유럽을 휩쓸게 되었으며 콜롬부스가 귀국한지 6년후에는 러시아에까지 번졌다고 한다.

더우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병에 대한 호칭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포르투갈에서는 이병을 “인디안홍역”이라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병”이라 불렀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그 반대로 “프랑스병”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 병은 서로 자기나라 병이 아님을 강조 하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매독은 이미 그 당시에도 여러나라로부터 외역을 당해왔던 병이라 하겠다.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바스코·다가

## 매독 전 (제2기)



매독에 감염되면 성행위가 있은후 대체로 3주후에 첫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1기 매독의 증상은 대체로 접촉된 부위인 귀두부나 포피에 여자의 경우에는 외음순이나, 질, 자궁경부 등에 흠집, 즉 경질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되면 한 개 또는 여러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의 일행이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서 소위 “인도항로”를 발견하고 인도에 상륙한 것이 1498년의 일이며, 이때에 매독도 같이 인도에 상륙하여 점차로 동남 아세아를 거쳐 1505년경에는 중국의 관동지방에까지 전파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를 보면 1512년에 매독의 유행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 당시 중국연안을 설쳤던 왜구(倭寇)들에 의해 일본으로 전파된 것으로 생각 된다. 일본에서는 이 병을 “관동창(廣東瘡)” 또는 “당창(唐瘡)”이라고 불렀으며 이와같이 하여 콜롬부스의 달갑지않은 선물은 불과 20년 사이에 세계일주를 하게된 셈이다.

이와는 달리 진화설에 의하면 원래 매독은 아프리카와 중동지방등에서는 옛부터 풍토병인 피부병으로서 존재 했던 것인데, 유럽에서는 기후, 생활양식, 그

리고 사회환경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염경로를 달리하여 성접촉에 의해서만이 전염되는 것으로서 진화 되었다는 것이다.

매독이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대체로 임진왜란(1592년·선조25년)을 전후한 것으로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입(流入)에 관해서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들어 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방만족들 즉 배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이다. 13세기 이래 우리나라가 겪은 왜란과 호란을 생각할때 이 두가지 설은 다같이 수긍이 되며, 이조 명조시대(1546-1567년)의 기록에 음창(淫瘡)이라고 하여 매독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매독의



임질은 수포가 터지면 껍질이 벗겨져서 작은 궤양이 생기고 심한 농이 나오기 시작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며 여자의 경우 월경때에도 재발이 잘됩니다. 여자는 음순이나 질내에 이런 수포현상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는 400년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IV. 성병 발생의 추세

성병환자의 발생추세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과거 20년동안 환자가 증가일로에 있으며, 임질환자는 매년 2억5천만명이 그리고 매독은 5천만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다고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학자는 지금 지구상에서는 2초마다 한명꼴로 새로운 성병 환자가 발생하며 현재 성병에 걸려 있는 사람만도 3억~4억이나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옛날과는 달리, 근래에 와서는 의학의 발달로 각종 성병의 병원체가 밝혀졌을뿐만 아니라, 많은 항생제의 개발로 치료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훨씬 수

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염병에 비해 성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병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성의 문란과 병을 숨기려는 태도등이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성병은 의학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처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각국에서는 이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옛부터 전쟁과 성병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세계 제2차 대전때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병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가져왔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차츰 안정을 회복하는 동시에, 때마침 개발된 페니실린의 덕택으로 그간 만연했던 성병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성병의

근절도 이젠 시간문제다 라고 낙관 하기  
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부터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  
한 성개방의 물결에 따른 무분별한 성  
의 문란, 페니실린의 지속적인 사용에따  
라 야기되는 내성문제, 페니실린 쇼크로  
인한 페니실린의 기피현상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성병은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근래에  
와서는 급격히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으  
며, 더우기 연령층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  
회적인 문제로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단 어느 한 나  
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세계 공통  
적인 현상이며, 특히 성개방운동에 앞장  
섰던 스웨덴을 비롯하여 미국등 선진국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는 6.25동란을 겪었을뿐 아니라 그 이후  
계속하여 외국군이 주둔 함으로써 성병  
환자의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또한 발  
생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등,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성병관  
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병관리를 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병만이 갖는 특  
수성 즉 성병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이를 감추려는 생각 때문에 어느 나라이  
고 성병에 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기  
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부분  
적으로나마 얻어지는 자료에 의하면 우

리나라에 있어서도 성병환자가 점차 증  
가하고 있음에도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성병은 남에게 옮길 가능성  
이 많다고 인정하여 정기적으로 성병검  
진을 받도록하고 있는 대상(위안부, 윤  
락여성, 접객부, 등)들의 성병감염율을  
보면 1961년에는 4.8%이던 것이 점차  
로 증가하여 1982년에는 9.6%에 이르  
고 있어, 20년동안에 2배로 증가한 셈이  
며, 이는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도 성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감염되었던 성병을 종  
류별로 살펴보면, 매독은 70년대 후반부  
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임질은 다소  
의 증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20  
년동안에 큰 변동은 볼수 없으며, 근래  
에 와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임균성요도염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병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실제로 임상에  
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성병은 매  
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의 세가지이  
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젊은층의 환자  
가 증가한다는 사실과 그 연령층이 더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세  
계적인 추세와 같다고 하겠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이다.

<필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수석연구원 · 의박>

<이달의 기생충 표어>

기생충 없는 국민

올림픽에 승리한다.

● 한국기생충박멸협회